



"개 못된 것은 짚을 데 가 안 짚고 장에 가서 짚는다"

뜻: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내버려 두고, 쓸데없는 곳에 가서 소란을 피우거나 잘난 척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본분 · 소용 · 허세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개	▽	못	된	▽	것	은	▽	짓	을	▽	데	▽	가
안	▽	짓	고	▽	장	에	▽	가	서	▽	짓	는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개	↓	못	된	↓	것	은	↓	짓	을	↓	데	↓	가
안	↓	짓	고	↓	장	에	↓	가	서	↓	짓	는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[illegible]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ㄱ] [ㄴ] [ㄷ] [ㄹ] [ㅁ] [ㅂ] [ㅅ] [ㅇ] [ㅈ] [ㅊ] [ㅋ] [ㆁ]

웹에서 보기

